ISSUE 02

택배 노동자의 건강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 이윤의 극대화 과정에 필수적인 택배노동

'우편물이나 짐, 상품 따위를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로서 택배(宅配) 노동은 현대의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가치 실현의 정점에 있다. 과거에는 상품의 제조 판매의 전 과정을 동일한 기업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생산, 영업, 판매, 물류 전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효율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상품사회의 각 분야는 세분화되었고 생산과 제조 과정은 1, 2, 3차 하청으로 분화되었다. 영업, 판매,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초반 택배업이 등장하였을 당시만 해도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상품들은 대개 소비자들이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마켓과 플랫폼으로 매개되는 물류 산업의 발전으로 24시간 상품 '생산'을 통한 잉여가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꿈은 이제 이윤 실현의 최종 단계인 '소비'와 그것을 위한 유통도 24시간 흐르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소비를 통해서 실현되는 이윤의 극대화 추구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플랫폼을 매개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택배업이 등장할 당시, 소비자들은 소매점을 직접 방문해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온라인 마켓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이 결합되면서, 24시간 상품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의 핵심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택배 노동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작업,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하다.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 분류 작업의 자동화와 시스템 개선, 배송용 차량의 인간공학적 설계, 상하차 작업을 보조하거나 계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운반 장비 도입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은 단시간에 많은 물량의 배송을 강제로 수행해야만 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스트레스는 흡연율을 높이거나 금연 의지를 꺾어 버린다.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시간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 저임금, 고용불안까지 겹치는 택배 노동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이처럼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강도 육체 노동, 야간 노동, 배송 중 안전사고 위험, 고객 응대에서의 감정 노동, 시간 압박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직업 건강 문제는 택배 노동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부분 노동 강도와 관련이 있다.

노동강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증진의 기본

택배 노동자들은 적정 노동시간과 강도로 일해서는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을 유지, 가능하지 못하기에 노동시간이나 노동밀도를 높이고 위험을 감수하게 되며 파편화된 노동에서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은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과로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과 안전보건 기준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기본이 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생활물류법을 활용

장시간 노동 고강도 육체노동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감정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정신건강 문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떠한 보건관리 상의 기술적 접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일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요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 영향이나 방지 대책이 택배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 문제는 택배 노동에서 마주치는 유해인자들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어야 사고와 질환이 예방될 것인가에 있다.

또한, 건강 문제에 뒤따르는 치료, 보상, 재활, 생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들이 노출되는 유해요인 자체의 고유한 위험성을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노동과 고용 방식을 찬미하려면, 그 책임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위험을 통해 얻어지는 이윤을 나누는 이들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노동자들을 법적 권리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일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건관리체계는 플랫폼을 활용해야

택배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은 산업 이후 등장한 공장 형태의 공동 작업공간에 기반하지 않고 노동(혹은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 속에서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붕괴, 노동자와 사용자 경계의 모호성, 집과 일터 간 경계의 모호성 등이 나타난다. 노동과정에서의 위험은 그대로 일지라도 그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게 된다. 새로운 노동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관리,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타코미터와 GPS는 노동자들을 노동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위험운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진전된 디지털 기술이 노동과정을 통제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여유율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터의 위험노출을 감지하고 보호구의 착용이 확인되어야 노동시간을 계량하는 방식 등으로

노동자들을 법적 권리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일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안전 및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택배 지역의 건물 구조 등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인간공학적 부담 수준을 평가하여 배송을 할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질병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에 기반한 후속 보건관리 시스템을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입직의 배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 한다면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스마트 건강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디지털 보건관리자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정보를 오로지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은 안전한 노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기 결정권에서 출발해야 하며, 안전보건의 관점에 따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노동 할당을 넘어서 건강관리에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보건관리자의 개념을 통해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